

영암군, 수소연료전지기반 레저선박 건조·실증사업 추진

조선업 집약적 산업구조 개선·신성장동력 원천기술 확보 총 48억원 투자... "산단 경쟁력 강화의 발판 마련할 것"

영암군은 조선업에 편중되어 국제조선경쟁의 동향·이슈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왔던 대불산단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대형선박에 대한 국제적 규제강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도비 및 군비, 기업부담금 등 총 48억을 투자하여 '수소연료전지기반 레저선박 건조·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불국가산업단지는 현대삼호중공업을 중심으로한 조선업 관련 기업체들이 산단 입주기업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조선산업이 집적화·특화되어 있어 국제조선경쟁 동향·이슈에 따라 막대한 영향을 받아와 산업구조의 안정성

을 위하여 다각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모든 선박에 대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최소 40%로, 2050년까지 50%로 감축하고 선박용 연료유의 황산화물(SOx) 함유를 낮춘 저황유를 쓰도록 하는 등 강력한 환경 규제 정책을 발표하여 국제적으로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조선업종 전환이 요구되었다. '수소연료전지기반 레저선박 건조·실증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불국가산단의 산업구조를 기업이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개선하고, 신성장동력 원천기술확보를 통한 신시장 선점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연구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조선해양 기자재연구원,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신성장동력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선박용 전기 추진장치와 수소연료 전지 공급장치 등 친환경동력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대불

산단 소재기업 ㈜빈센이 참여하여 선박 건조 및 해상실증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확보로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및 조선업 집약적인 대불산단의 산업구조 개선을 통해 산단 경쟁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라며, "이번 사업 외에도 지속적인 사업발굴을 통하여 우리 군이 친환경에너지 선박분야 신규시장 창출의 대표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목포시,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 '대상' 수상 기초자치단체 분야...노인일자리 지원·경로당 운영 활성화 등 공로



목포시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주최하는 2022년 제1회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 기초자치단체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시는 노인일자리 지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등 노인복지를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시는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2022년 전체

예산 8,900억원 중 16.2%인 1,448억원을 노인복지예산으로 편성했다. 특히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에 사업비를 2배 규모로 확대했으며 노노케어, 스콜존교 통지원 봉사, 경로당자킴이 등 다양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발전을 위해

관내 198개소 경로당에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매일 5만원씩 일괄 증액했다. 이와 함께 공기청정기, 에어컨, 냉온수기, 건강안마의자, 소파, 식탁 등을 지원해 경로당 환경을 개선해가고 있다. 아울러 모든 경로당에 미디어보드TV를 설치해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한국을 보급해 어르신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에 대한 지원에도 힘써 올해는 지난해 대비 2,696만원의 운영비를 추가 지원했다. 노인일자리사업도 지난해보다 207명 증원해 총 842명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조성재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이 중단되고 정서적으로 후퇴하는 생활을 계속되는 상황에서 아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경로당에 건강안마의자를 설치하는 등 노인 복지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목포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어르신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에 감사드린다"며 "수상에 안주하지 않고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는 목포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기자



무안군 망운면, 톱머리항 바다 청소 실시

무안군 망운면(면장 김기영)은 지난 17일 새마을 부녀회(회장 이희숙)와 새마을지도자회(회장 강재희), 톱머리주민(이장 진남원) 등 관내 사회단체 관계자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망운면 톱머리항 일대에서 대대적인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봉사자들은 이번 정화활동을 통해 톱머리 해안도로, 백사장과 주변 송림 일대를 청소했으며, 2톤 분량의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했다.

또한 톱머리 항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자연공간 제공을 위해 쓰레기 투기방지를 위한 홍보도 실시했다. 김기영 망운면장은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아침부터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망운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신안 '1004굴' 친환경 개체굴 양식분야 정부공모 사업 2년연속 선정

총 사업비 40억원 확보

신안군은 지난 16일, 2021년에 이어 올해 해양수산부 주관 '친환경개체굴공동생산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총 사업비 40억원(국비 20, 지방비 20)을 확보해 '1004굴' 개체굴 양식 산업화에 날개를 달고 개체굴 양식단지 조성 및 민간이전 전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자은면 면전 등 7개소로 기존 개체굴 사업지구의 규모화 및 신규지구

를 확대 추진하고, 개체굴 전용 종자생산시설을 증축하여 종자 생산량을 극대화하여 개체굴 양식 1번지로 앞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신안군은 지난 2019년도부터 2년간 공공주도형 자연노출식 개체굴 완전양식 연구개발 및 시범양식을 완료하였고, '개체굴 양식학' 운영을 통해 인적자원 육성에도 힘을 써왔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신안갯벌에서 생산된 개체굴은 '1004굴'로 브랜드하여 굴 패각에 '1004굴' 상표를 레이저로 각인을

통해 브랜드 가치 향상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신세계 백화점 레스토랑(명동·강남·대진) 및 데블스도어 오이스터바에 납품하여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신안군에서 생산하는 개체굴은 전량 3배체 개체굴로 생산작용을 하지 않아 여름에도 유통이 가능하며 날개로 양식하여 규칙적인 성장을 하고 수확식 덩이굴에 비해 10배의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 신안=이덕주기자

개화 전 1회·개화기 2회 방제 필수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사과·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사전 방제 지도에 나섰다. 함평군은 21일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방제를 실시하고, 적기에 방제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등록약제를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화 전 약제방제는 배는 꽃눈이 트기(꽃눈 발아)전, 사과는 새 가지가 나오기 전에 등록된 약제로 실시해야 한다. 약제에는 구리 성분이 들어있어 석회유황합제 등 다른 약제와 섞어 쓰면 약제로 인한 피



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꽃 감염 위험도 정보를 제공하는 과수화상병 예측정보 시스템(<http://fireblight.org>)을 활용하면 지역별 적기 방제시기를 알 수 있어 방제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함평=김광훈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